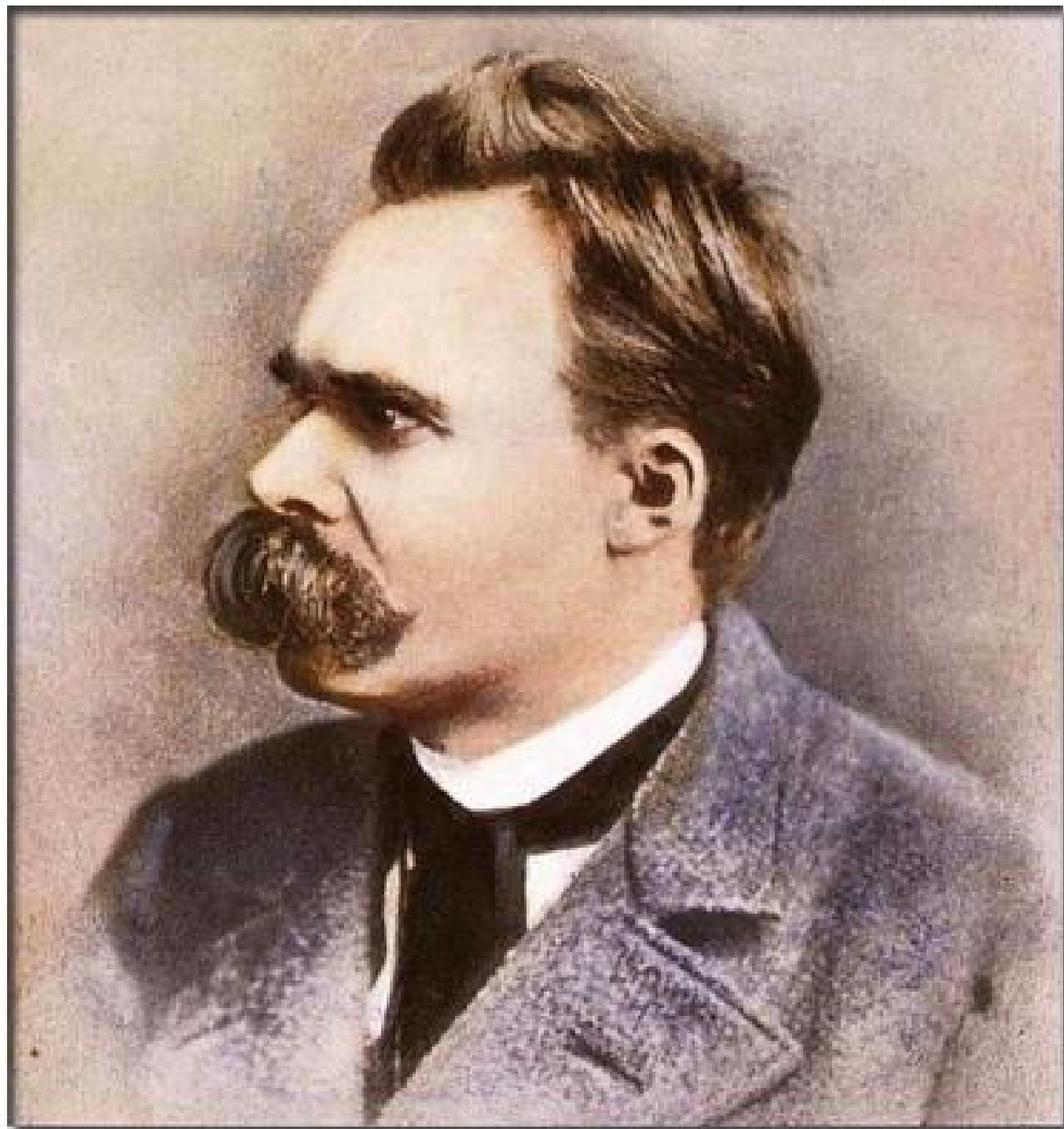


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

모두를 위한 책,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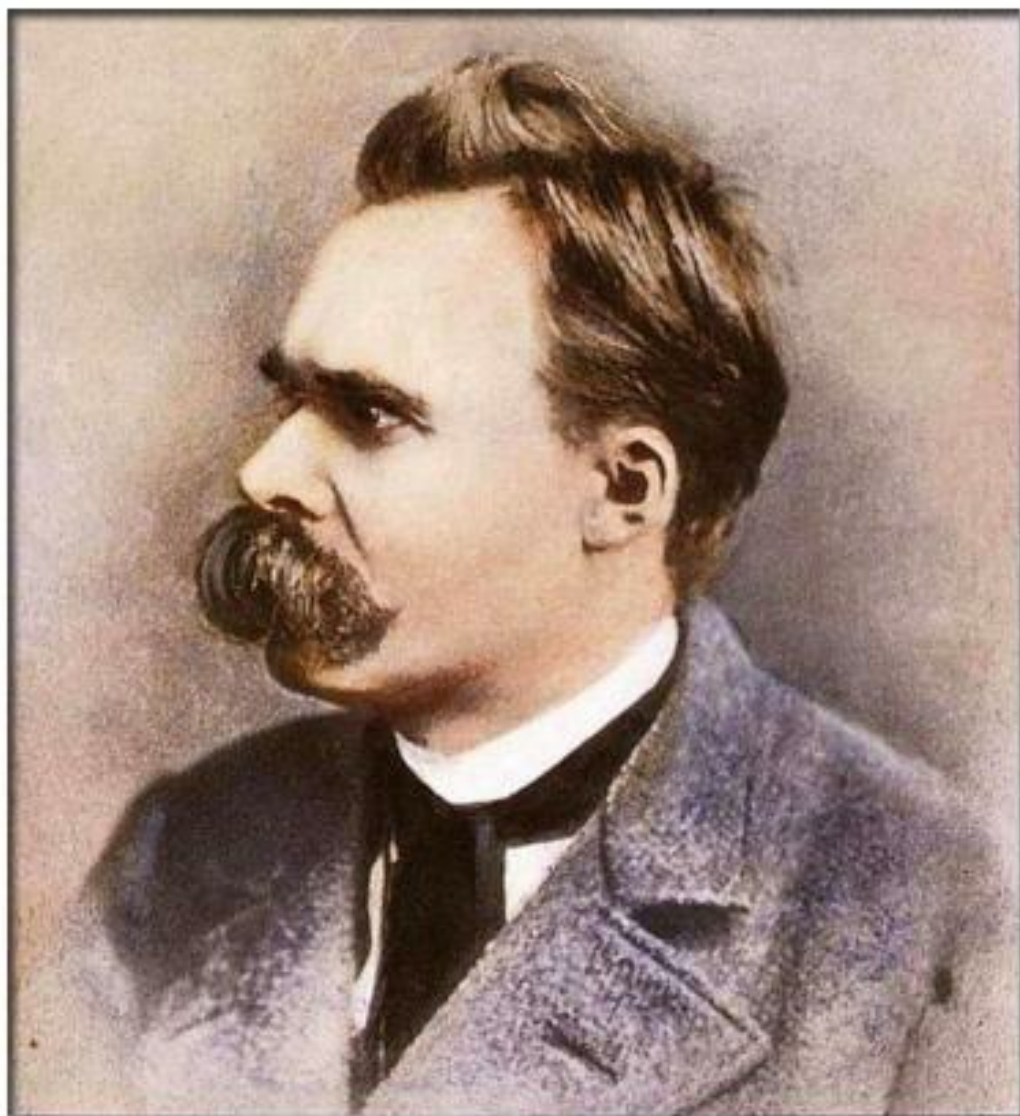


Also Sprach Zarathustra: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
Thus Spoke Zarathustra: a Book for Everyone and No One

기획/번역: 박성현 (옛 필명 백석현)
duduri Mebook AA003 Ver.1.0

짜라두씨는 이렇게 말했지

모두를 위한 책, 그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책



Also Sprach Zarathustra: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
Thus Spoke Zarathustra: a Book for Everyone and No One

기획/번역: 박성현 (옛 필명 백석현)
duduri Mebook AA003 Ver.1.0

짜라뚜자

-
- 출판사 | 두두리
 - 저자명 | 박성현
 - 공헌자 | 알수없음
 - 출판일 | 2010-10-06
-

책 소개

짜라뚜자는 이렇게 말했지_ 프롤로그

저작권

본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.

-1-

0:1 짜라두짜가 서른 살 때 일어났어 . 집을 떠났지 . 물론 집 옆의 호수도 떠

났지 . 산으로 갔어 . 이곳 산에서 십 년 동안 고요한정신의 기쁨을 누리 고

고독을 즐겼어 . 하지만 갑자기 마음 ^[1]이 크게 바뀌었지 . 어느 날 새벽

잠에서 깨어난 짜라두짜는 떠오르는 해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 .

0:2 아 ! 위대한 태양이시여 !

만약에 당신의 빛을 누리는 존재들이 없다면
당신의 기쁨도 사그라지겠지요 .

0:3 지난 십 년 동안 저의 누추한 동굴에 오셨습니다 .

만약 저나 , 제가 돌보는 독수리나 뱀이 없었다면
서는 이곳에 빛을 쏘여 주시는 것도 지겨우셨을 겁니다 .

0:4 저와 독수리와 뱀은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렸지요 .

당신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누렸고 당신을 찬양했지요 .

0:5 제 모습을 보십시오 !

저는 지금 저의 지혜가 지겹습니다 .

꿀을 너무 많이 모은 벌처럼

지혜를 너무 많이 모았습니다 .

저로부터 지혜를 가져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.

0:6 저는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.

지혜로운 사람이 저의 지혜를 나누어 받으면
가끔 바보 같은 짓을 범하더라도 여전히 기쁠 것이며
가난한 사람이 저희 지혜를 나누어 받으면
지금의 가난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.

0:7 그래서 이제 세상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.
당신도 저녁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요 ?
바다 뒤편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요 ?
지하 세계에도 빛을 비추지요 ?
아 , 풍요하고 또 풍요한 태양이시여 !

0:8 당신처럼 저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.
제가 내려가서 만나고 싶은 존재인 인간은
그것을 < 내려간다 > 고 부르더군요 .

0:9 고요한 눈 같은 태양이시여 !
행복에 겨워 주체를 못하는 저 같은 놈을 보시고도
질투하지 않는 태양이시여 !
저의 여행을 축복해 주소서 !

0:10 넘쳐흐르기 원하는 그릇을 축복해 주소서 !
그 그릇에서 금빛 물이 넘쳐흐르도록 축복해 주소서 .
당신의 황금빛 즐거움을 고스란히 안고
금빛 물결이 되어 온 세상에 흐를 수 있도록 !

0:11 저를 보십시오 !
짜라두짜라 불리는 이 그릇은
이제 다시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.

짜라두짜는 이제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.
이렇게 짜라두짜는 세상 속으로 < 내려가기 > 시작했어 .

-2-

0:12 짜라두짜는 혼자 산을 내려갔어 .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 .
하지만

숲으로 접어들자 노인네가 한 명 짜라두짜 앞에 서 있었어 ! 성스러운

오두막을 잠시 떠나 숲에서 풀 뿌리를 캐고 있던 노인네였어 . 노인

네는
이렇게 말했지 .

0:13 “ 흠 , 방랑하는 이 친구는 전에 본 적이 있는데...

오래전에 여기를 지난 적이 있어 .

이 사람이 짜라두짜였던가 ?

그런데 뭐가 많이 바뀌었는데...

어이 ! 그전에 산으로 갈 때에는 재 [2]를 가지고 올라갔잖아 !

0:14 이제 신수가 흰하네 !

이젠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저 아래로 내려가려는 거야 ?

불을 가지고 ?

그러다가 방화범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?

0:15 흠 , 그래 . 이제 이 친구 , 짜라두짜가 확실히 기억나는구먼 .

눈빛이 아주 맑아졌는데 !

세상에 대한 구역질 때문에 일그러졌던 입매도 반듯하고 !

게다가 걷는 것도 경쾌하기 짝이 없군 !

0:16 짜라두짜 , 정말 많이 바뀌었네 !

짜라두짜 , 아이가 됐어 ! 정신이 말뚱말뚱해 ! 어이 ! 짜라두짜 !

저 아랜 전부 잠에 취한 놈만 살아 ! 거기 가서 뭐 하려고 ?

0:17 자네는 바다 같은 고독 속에 살았잖아 !

그리고 바다 같은 고독은 자네를 보듬어 주었지 .

아 그런데 이제 땅으로 가겠다는 거야 ?

고독이라는 바다에서는 가만있어도 몸이 뚱뚱 떠 있지 .

땅으로 가면 이제 자네 스스로 몸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할걸 ! ”

0:18 짜라두짜가 대답했어 .

“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. ”

0:19 그러자 그 노인네 성자가 말했어 .

“ 내가왜숲속에들어온지알아 ? 내가왜 사막에서 살았는지 알아 ?

내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?

0:20 하지만 지금 !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. 이제 인간은 사랑하지 않네 .

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야 .

인간을 사랑했다가는 내가 부서져 나갈 걸세 . ”

0:21 노인과 말을 다투기 싫어 짜라두짜가 대답했어 .

“ 사랑에 대한 내 말은 다 잊으십시오 !

아무튼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. ”

0:22 “ 아무것도 주지 말게 ! ”

늙은 성자가 말했어 .

“ 차라리 사람들 짊어진 짐을 좀 덜어서

그들과함께메고가게나 .

그렇게 하면 그들은 엄청 좋아하지 .

문제는 자네가 그런 짓을 하고 기분이 좋을 수 있나 , 그거지 !

0:23 인간에게 그렇게도 무엇인가 주고 싶으면

동냥 푼이나 던져 주게 !

자네 앞에서 꿇어 엎드려 받도록 말아야 ! ”

0:24 짜라두짜가 대답했어 .

“ 동냥 푼이라니 !

나는가진게너무많아서

작은 동냥은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습니다 ! ”

0:25 이 말에 늙은 성자는 꺄꺄 웃었지 .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.

“ 자네가 가지고 가는 선물을 인간이 받게 하려면 애 좀 먹을게야 !

인간은 우리 같은 은둔자를 믿지 않아 .

우리가 무엇인가 나누어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믿지 않지 .

0:26 인간이 사는 골목길을 걷게 되면

발자국 소리만 너무나 처량하게 울리지 .

캄캄한 이른 새벽 잠자리에 있다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처럼

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 .

‘ 도둑놈이 가고 있구나 . 저 도둑놈은 어딜 가고 있지 ? ’

0:27 인간에게 가지 마 ! 숲 속에 머물게 !

차라리 짐승에게가봐 ! 나같은사람이되면안되나 ?
곰속에서 곰처럼 살고 새 속에서 새처럼 살고 있잖아 !”

0:28 짜라두짜는 이렇게 물었어 .
“ 성자는 숲 속에서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?”

0:29 늙은 성자가 대답했지 .
“ 나는 노래를 짓고 부르지 .
노래를 지을 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중얼대기도 하지 .
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네 .

0:30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대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.
내 하나님을 말아야 .
근데 자네는 선물 좀 가지고 왔나 ?”

0:31 늙은 성자가 이 말을 하자 짜라두짜는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했어 .
“ 내가 반드시 선물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?
나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.
내가 얼른 가 버리면
최소한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 갈 일은 없을 겁니다 !”
그리하여 노인과 짜라두짜는 서로 헤어졌어 .
두 명의 소년처럼 웃으며 헤어졌지 .

0:32 하지만 노인과 헤어져 혼자가 된 짜라두짜는 중얼거렸어 .
“ 세상에 ! 믿을 수가 없군 !
저 늙은 성자는 숲 속에서 살면서 아직도
신이 죽었다 는 소식을 듣지 못한

모양이야 !"

-3-

0:33 짜라두짜는 숲에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들어섰어 . 사람들이

시장 (市場) 에 잔뜩 모여 있었지 . 조금 있으면 줄타기 곡예가 벌어진다고 했어 .

짜라두짜는 사람들에게 말했어.

0:34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.

사람은 < 넘어서야 > 할 존재입니다 .

여기 계신 분들 ! 이제까지 자신을 < 넘어서기 >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?

0:35 모든 생물은 자신보다 나은 것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.

이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?

사람을 < 넘어서서 > 앞으로 진화해 가는 대신에
동물로 퇴화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?

0:36 사람이 원숭이를 어떻게 봅니까 ?

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치 덩어리로 봅니다.

초인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

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치 덩어리로 봅니다.

[1] Herz.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Herz 를 ‘ 가슴 ’ 으로 번역했음 . 정서 혹은 감정을 뜻함 . 이 부분은 ‘ 가슴 ’ 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‘ 마음 ’ 으로 함 .

[2] 3:9. 절망에 빠져 고행에 나섬 . 기독교에서는 재는 비탄에 잠긴 채 고행 길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.